



- 연중 제29주일·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전교 주일) - 2019년 10월 20일 · 다해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822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ca.or.kr

정약종 관



설립 2018년 7월 16일 전화 사무실 031-850-1400 주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359-2

제1독서 이사 2,1-5

화답송 시편 98(97),1,2-3ㄱ,3ㄴ,3ㄷ-4,5-6(◎ 2 참조 또는 3ㄷㄹ)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제2독서 로마 10,9-18

복음 환호송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마태 28,16-20

영성체송 마태 28,20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돌무화과 나무의 자캐오와 같이...



김경민 레오 신부
풍동 부주임

오늘은 교회 본연의 사명인 선교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는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전교 주일입니다. 전교주일을 보내며 저는 신학생이 된 후 처음으로 가게 된 청년 여름 캠프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캠프 숙소로 사용하던 바닷가에 위치한 작은 공소에는 캠프를 함께 간 청년들이 모여 미사를 봉헌할 실내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2박 3일의 캠프를 마무리하는 파견 미사는 야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인해 미사는 중단되었고 캠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쏟아지는 빗속에서 간신히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제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사를 시작하려 하는데 캠프에 참여했던 많은 청년들이 비를 피해 천막 안에, 방갈로의 창문에 매달려 미사를 드리려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모습은 마치 마을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자캐오의 모습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모습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심지어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나에게서는 '과연 저들과 같은 열정이 있는가?'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묻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체험은 사제가 된 제가, 지금의 사목 현장에서 주님을 전하는 데에 더 큰 열정을 쏟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저와 함께 하는 봉사자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라는 예수님의 오늘 복음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야만 가능한 일 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자캐오와 같이 빗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기 위해 제대 주변으로 모였던 청년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음 선포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들 역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교회의 첫째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복음 선포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한 주간 보내야 하겠습니다. 🌻



나의 믿음

김나윤 요안나 / 교하 성당

저는 어른들이 젊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다며 다 어리고 어리다고 하는 21살 청년입니다.

남들은 젊다고 하는 이 시간들 동안에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나 모두 가지고 있을 생각만 해도 기쁜 일, 행복한 일, 슬픈 일.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행복한 일을 떠올려보라 한다면 7살 성탄절 날이 생각납니다.

눈이 솔솔 내리며 엄마와 함께 손 꼭 잡고 고구마케이크 하나를 사왔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케이크에 초를 꽂고 아빠 엄마와 함께 바둑이를 품에 안고 성탄절을 기념했습니다. 어린 저는 성탄절이 무엇인지 의미는 접어두고 그냥 아빠 엄마와 그리고 달콤한 고구마 케이크가 좋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서로 웃고 편안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동화책을 읽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소소한 일상이지만 저는 이런 평범함이 영원하기를 하느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동시에 슬픈 일은 없기를, 슬픈 일이 생긴다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버틸 수 있을 정도만 되기를..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내 사람들이 편안해졌을 때, 그 편안함을 오랫동안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겁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라 무서운 일은 시작하지 않으려 합니다. 저에게 제일 무서운 어떤 것은 사람입니다. 저는 의심이 많으며, 신을 믿지 않는다며, 나를 믿는다며 강한 척을 합니다. 근데 어찌면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믿고 또 오늘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마음과 같지 않지만 특히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내 마음과 같을 수 없어 끝을 알 수 없는 우주같기도 제가 제일 못하는 과학의 원소 기호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라는 문제를 잘 풀었다고 믿으며 기뻐하고 있을 때, 저의 기쁨을 앗아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보다도 무서운 헤어짐입니다. 너무나 많은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짐은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괴롭기만 합니다. 용감한 척하던 저는 헤어짐을 마주할 때에도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느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에 취하도록 해주소서.”

“그들이 원망스러워도 그들을 탓하며 제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게 해주소서.”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제 곁을 떠나기만 해서 저는 그 누구도 쉽게 믿거나 좋아하려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 저를 포장하려 합니다. 빈자리가 가득한 곳에서 공허한 공기와 진짜 제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어쩌다 현명할 것만 같았던 어른에게 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나이는 다 그런 거라며 다 지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다 지나갈 폭풍을 그저 즐기라는 솔한 어른들에게 저는 그저 20대를 잘 보내고 있는 밝은 청년으로 기억되길 바랄 뿐입니다.

하느님은 제게 그런 존재이십니다. 무한하게 신뢰하며 저의 걱정을 무한히 덜어드리며 매일같이 저의 무한한 소망과 원망을 들어주시는 나의 하느님. 그런데 무심하시게도 하느님은 저에게 그 어떠한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저는 또 오늘도 내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문득 떠오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이 알려주신 나의 어려운 문제의 정답이 아닐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하느님께 계속 말을 하며 하루의 끝을 향해 걸어갑니다.

저에게는 하느님과 가장 가까울거라 생각했던 성당이 가장 어렵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성당도 세상의 흐름에 맞춰 변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방식은 다릅니다. 아직 저는 누군가와 함께 어울리며 하느님을 만나기엔 두려움도 겁도 많은 신자입니다. 평일 낮에 사람이 많이 없는 학교성당이 조금은 편안한, 생각이 너무나도 많은 신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기에 창피합니다. 또 청년의 건강한 신앙생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삶 속에 순간순간 하느님께 말을 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언젠가 보고싶은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느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을 나의 영원이자 기억인 박정례 마리아께 모든 글을 바칩니다. ☺

미국에서 유래한 종교들 1

재림파

1844년, 미국 침례교회의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에 따르면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많은 신봉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실현될 리 없었다. 이 '대실망(The Great Disappointment) 사건' 이후 그 신봉자들이 갈라져서 새로운 종교들을 세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재림파 윌리엄 밀러의 열렬한 신봉자였던 엘렌 화이트가 대실망 사건 이후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흩어지는 재림파 신도들을 다시 모아들여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다. 이들은 엘렌 화이트가 보았다는 환시와 계시의 말을 권위 있는 말로 받아들였으며, 1860년부터 자신들의 집단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Seventh Day Adventist Church; SDA)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들은 '구약의 안식일(토요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영혼불멸과 지옥존재는 거짓이다.' 등의 주장을 한다. 실천적인 면에서 육식을 피하고 채식을 하라고 권고한다(예전에 TV에 나와 채식을 권고하던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 신자였다).

한국에는 1904년에 들어왔다. 일제 강점기에 교육과 병원 사업을 통해 선교활동을 펼쳐왔다. 삼육학교, SDA 어학원, 출판사 시조사, 삼육병원(옛 위생병원), 삼육식품 등을 운영하고 [The Change(변화)]라는 잡지를 보급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과 성령강림의 날인 '안식일 다음 날' 곧 '주간 첫날'에 초대교회 때(사도 20,7; 1코린 16,2; 묵시 1,10)부터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미하며, 빵을 떼어 나누어 먹었다. 안식일 준수를 주장하는 것은, 주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며 신약의 실천과 교회의 전통을 부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호와의 증인'

19세기 말 안식일교의 이론을 수용해 변형-발전시킨 인물이 등장했다. 그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인 찰스 러셀이다. 그와 추종자들은 '파수대'라는 잡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하고 있다. [삼위일체 부정 - 예수님은 단지 피조물-천사이며, 성령은 하느님의 활동력이라며,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의 위격성을 부정한다. 또 안식교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불멸과 지옥의 존재'를 부정한다. 여호와의 증인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출발 때부터 1914년을 종말의 해라고 주장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자 1925년, 1975년 등으로 날짜를 바꾸어 발표했다. 그러다가 지금은 교리를 수정해서 '1914년 이미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말한다. 수혈 거부, 군대에서의 총기거부 등으로 여러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도인'(정식신도)이 되면 전도를 해야 한다. 단계가 올라가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보조 파이오니아(50시간/월), 정규 파이오니아(840시간/년=70시간/월), 특별 파이오니아(120시간 이상/월)] 그래서 그렇게 '파수대'와 '깨어라'를 들고 집으로 찾아오고 거리에 서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론에 맞추어 성경을 재해석 번역한 [신세계역 성경]을 들고 다닌다. 한국에는 1912년에 들어왔으나, 일제에 의해 해산되었다가 6.25 이후 다시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 ☸

우당탕탕! 교하성당 청소년부 여름캠프

교하성당 청소년부 친구들은 지난 여름 “낮에는 그들에게 그들이 되어 주고, 밤에는 별빛이 되어 주었다.” (지혜 10,17)라는 주제성구로 온종 가득한 2박3일의 캠프를 다녀왔어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충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이번 캠프에서 큰 몫을 한 밀알 친구 두 명의 소감을 들어볼게요!



“제가 그 동안 참여한 5번의 캠프는 모두 학업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환상적인 시간들이었어요. 이번 캠프에서는 저희가 영화 '알라딘'의 명장면들로 장기자랑의 특별 무대를 장식했는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무대였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학생으로서는 마지막이었던 이번 캠프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거예요! 후배들에게 가능한 함께 할 수 있을 때 꼭! 참가하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늙으면 가고싶어도 못간다고...”
(고2 유현규 요한마리아비안네)

“어느덧 다섯 번째 캠프를 다녀왔어요. 학생으로서 마지막 캠프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어요. 첫 캠프 때 저를 챙겨주던 형을 등지고 동갑 친구들과 모여 놀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재미있게 나누던 이야기들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유치한 이야기였는지... 그사이 우리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느껴봅니다. 부족한 조장이었지만 제 말 한마디에도 아낌없이 웃음꽃 피워준 우리 조원들 사랑합니다. 캠프의 기억들이 흐릿해져도 우리가 함께 했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필름 안에 영원히 간직될 거예요!”
(고2 장은혁 스테파노)



여름 캠프의 성구처럼, 앞으로도 하느님과 교하성당이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그들과 별빛이 도기를 기도합니다! 교하성당 청소년부 모든 이들, 사랑합니다♥ ps.더 많은 내용은 교하 청소년부 인스타그램에! (ID:gyohayouth)



멜랑콜리아 (2)

음악 이야기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
대신학교

가을이 깊어 갑니다. 바쁜 하루가 흘러가고 해가 저무는 때에 마침 라디오에서 계절에 어울리는 음악이라도 나오면 먼 곳에서 돌아오는 추억들에 사로잡힙니다. 메마른 감정과 왜소해진 생각들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지요. 잠깐이라 할지라도, 이럴 때 내가 살아 있는 존재라는 실감이 듭니다. 쓸쓸하고 아련한 감상으로 빠져드는 듯해서 멍쩍기도 하겠지만 잠시나마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분'에 그대로 나를 맡길 때 지친 마음이 짐을 덜고 치유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가을날, 석양에 어울리는 노래로 “가을 Autumn”을 꼽아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프로그레시브 포크 락 그룹 “스트롭스 The Strawbs”가 1974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오래되고 고풍스러운 면이 있지만 십 분에 육박하는 이 대곡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호소력 있습니다. 이 곡은 삼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Heroine’s Thema 히로인의 주제곡 / Deep Summer Sleep 긴 여름의 잠 / 겨울은 길고), “나는 가을이 오는 것을 느끼지(I sense autumn coming on)”라고 노래하며 시작되는 가사가 간결하면서도 시적입니다.

가을을 감지하는 화자의 고백을 우리는 ‘멜랑콜리’의 감정으로 이해해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자연이 변화하고 익숙했던 풍경들이 서서히 안녕을 고하고, 쓸쓸함과 불안함의 조짐을 느낍니다. 초록의 생명력 사이에 조금씩 자취를 보이던 갈색이 보여지고, 어느덧 지난 여름은 깊이 잠들어 버린 듯 사라지고 가을이 옵니다. 찬바람에 나뭇잎들은 하나 둘 떨어져서 말없는 침묵의 대지로 돌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쓸쓸함은 우리에게, 겨울은 길고 길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게 합니다. 이 곡의 후반부는 그러한 긴 겨울 (The winter long)의 예감이 삶의 의지로 변모되어가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전히 잔잔한 물이 흐르고, 바닷바람이 불고, 발 밑에는 야생화들이 피어 있음을 볼 수

있다면. 문득, 겨울이 죽음과 절망의 시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 모릅니다. 눈이 소복소복 내릴 때, 촛불 아래에서 기쁨이 머무는 ‘그대’의 발그레한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있으며 바라보고 지켜 주기를 이 노래의 화자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미로우면서도 박력 있는 이 노래에서 가을의 쓸쓸함은 오히려 내면이 소생하고 단단해지는 계기입니다. 멜랑콜리를 통해 오히려 마음의 눈을 열고 자연과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며 용기있게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여름의 풍요함이 하나 둘 사라지는 것을 온몸으로 감지하는 가을은 어쩔 수 없이 ‘멜랑콜리’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 절망의 예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겨울’로 상징되는 고된 길이 오더라도 끝끝내 걸어가리라는 생의 의지를 가다듬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노래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철학자 칸트에 따르자면 ‘건강한’ 멜랑콜리는 인간에 숭고한 감정을 부여하여 인격적 존엄성을 실현하게 하는 동력이지만, 반대로 인간의 진실을 회피하고 인생을 두려워할 때는 병적 기질로 전락합니다. 이 가을, 나의 마음이 멜랑콜리에 흔들리고 있다면, 이제 인생의 더 큰 의미로 초대받은 것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곳곳이 견디고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 기쁨이자 보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건강한 멜랑콜리를 배우는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YOUTUBE로 보기



스트롭스(The Strawbs)
‘가을 Autumn’



교구장
동 정

10월	20(주일)	11시	견진성사 - 야당맑은연못 성당
	22(화)	20시	사목방문 - 탄현동 성당
	23(수)	10시	해밀 10주년 미사
	24(목)	20시	견진성사 - 토평동 성당
	26(토)	19시	견진성사 - 중산 성당



교구
소식

5,6지구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10/24(목) 10시

장소 신원동 성당

10월의 어느 멋진 날(현대인의 힐링을 위한 음악회)

일시 10/25(금) 19:30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대성전 (3층)

내용 성가 및 가곡 합창, 악기 연주 외

문의 본당 사무실 031-836-1980

5,6지구 혼인교리 10월, 11월 장소변경 안내

5,6지구 혼인교리를 백석동성당 리모델링 관계로 10/26(토), 11/30(토) 두 달만

식사동 성당(18시부터)으로 장소가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눈으로 고전읽기 / 최대한 신부

장소 신앙교육원(의정부교구청 內)20시~21:30

일정 11/1('괴테와의 대화') 읽기

문의 선교사목국 031-850-1446~7

회비 1만 원(당일 현장 접수)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11/4 (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조희정 헬레나, 이호영 베드로, 김남주

문의 031-850-1507(주말, 공휴일 휴무)

의정부교구 제9기 민족화해학교 심화과정 연수 안내

대상 민족화해학교 1단계 수료자

일시 11/30(토) 10:30~12/1(주일) 17시

장소 민족화해센터(파주시 탄현면 성동로 111)

인원 및 연수비 선착순 50명, 5만 원(1인)

종강미사 및 수료식 12/1(주일) 16시 /민족화해센터 대강당

문의 031-941-6235~6

나무그늘 사진 공모 알림

소소한 나의 일상을 보내 주세요! '기억하고 싶은 사람과 순간', '이야기가 있는 묵주', '나의 기도공간'

채택된 작품은 <<나무그늘>>에 실어 드리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문의 031-850-1447, 이메일 samok@uca.or.kr ※ 본당, 이름(세례명),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사 제



이사응 안토니오 신부
12주기

1933년 7월 27일 출생

1965년 12월 16일 서품

2007년 10월 27일 선종



양종인 치릴로 신부
7주기

1972년 2월 9일 출생

2000년 12월 13일 서품

2012년 10월 23일 선종



미사 · 피정 ▶▶

교구 철야기도회 은사를 통한 치유피정

일시: 매주(금) 21:10~01:20 마두동 성당(10/25)

주제: 제7주 치유의 은사2

강사: 송병섭 아우구스티노 신부(마리아수도회)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010-8729-0025

제주면형익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가능)

기간: 10/27~29, 11/3~6(추자도), 11/11~13,

11/24~27(추자도), 12/2~4, 12/6~8

연말연시: 12/29~1/1(일몰, 일출, 한라산눈꽃산행)

접수: 02-773-1463, 064-756-6009

가정회복 은혜의 낮피정(고해성사,상담)

일시: 10/21(월)13시~16:30(말씀,찬양)

장소: 정동프란치스코회관(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마리아니스트 센터 미사안내

성모신심 미사: 매월 첫(토) 11시(11/2)

후원회 미사: 매월 4째주(월) 11시(10/28)

위령 미사: 매월 마지막(금) 15시(10/25)

고양시 토당동 문의: 031-926-3090

해바라기 가을피정

일시: 11/9(토) 16시~10(주일) 15시

장소: 부산 성문도 은혜의 집

대상: 35세 이하 미혼여성

신청: 대건수녀, 010-8551-3312

신약성경 통독피정 (2박 3일)

날짜: 11/19(화)~21(목)

장소: 인천교구 50주년 기념 영성센터 강의실

지도사제: 손광배 도미니코

피정비: 20만 원(비숙박 15만 원)

문의/신청: 영성센터 032-933-1528

주일 오후 피정 '되돌아 가기'

일시: 10/27(일) 13:30~18시

장소: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돈암동본부(전

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지도신부: 양창우 요셉 /문의: 02-929-2977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올레, 미사, 기도, 강의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일시: 11/1~3, 11/5~8, 11/12~14, 11/21~24,

12/1~4 /문의: 064-796-9181

예수의성모 관상수도회 영성미사 및 영성강의

영성미사및강의: 문호영 신부

일시, 장소: 매월4째주(토) 10/20 13시(고

해성사) 14시(미사및성시간 /명동가톨릭회

관 2층(205-2호)

문의: 032-933-7237,4825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내용: 효소단식으로 몸속에 쌓인 독소, 노폐

물, 체지방을 없애고 성체신심 세미나를 통

해 성체신심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는 프로

그램으로 영육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

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일시: 11/8(금)~11(월), 12/6(금)~9(월)

피정지도: 토마스신부(본원)

장소: 성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피정비: 36만 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신 글라라)

『평신도를 위한 침묵피정』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일시: 11/8(금)~10(일), 2박3일

장소: 시흥시 계수동 성바오로 피정의집

주최 및 문의: 한국CLC 02-333-9898

(월~금), 10/31까지 접수.

예수회 후원회 월례특강

주제: 상처치유를 위한 두 기동-관상과 성찰

강사: 최준열 신부 /장소: 마두동 성당 4층

소성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54)

일시: 10/21(월) 13:30~16:30

문의: 010-5054-4470 /무료, 미사봉헌

예수회 후원회 금요침묵피정

주제: 위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강사: 배영길 신부

일시/장소: 10/25(금) 10시~13시 /예수회

센터(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교육 · 모집 ▶▶

고양동 성당 관리장 모집 안내

본당을 위해 성실히 일해주시 분을 찾습니다.

자격: 60세미만 남성

제출서류: 교적증명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1종보통

운전면허)

접수마감: 총원시까지 /면접: 개별통보

문의: 031-962-2543 (제출서류 반환불가)

이주민 치과진료봉사자 모집

대상: 월 1회 이상 진료가능한 치위생사

활동: 파주 EXODUS 치과진료봉사

문의: 031-948-8105, 김광한 스테파노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0 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

명문화학 /석사과정·원서접수: 11/4(월)

~15(금) 17시 /입학전형: 12/2(월) 14시

문의: 02-2258-7076(대학원교학팀),

02-2258-7107(친교실)

주교회의 '평신도 장학금' 2020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부문: ①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②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기간: 10/16~12/16

접수: 우편 또는 전자우편 cafl@cbck.kr

문의: 02-460-7533 주교회의 평신도기금

운영위원회 ※자세한 내용 주교회의 홈페이지

지 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단종독교육 안내

일시: 10/26(토) 14시

장소: 단종독사목위원회(서울시 중구 중림

로 27 가톨릭출판사 신관 5층) /대상: 물질

중독자(알코올,마약 등) · 행위중독자(도박,

인터넷,쇼핑 등) 및 가족 /강사: 성직자, 정신

과전문의, 중의학박사, 중독상담사 등

문의: 사전전화접수 02-364-1811~2

예비신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요금: 만 원

주소: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우: 04535

전화: 02-2274-1843,4/ 홈페이지 cdcc.co.kr

실천교리교육 일일특별연수

일시: 11/17(주일) 10시~16:30
 장소: 서울 노들담교육관(종로구북촌로)
 주제: 바닷그림을 통한 교리교육과 전례연수
 대상: 교리교사, 사제, 수도자

한마음함몰운동본부, 피앗누리 28기 모집

지구촌과 나를 연결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일시: 20.1/9(목)~19(일)
 장소: 캄보디아 캄봉고 마을
 상세내용: www.obos.or.kr 이메일접수 11/17(일)까지 /문의: 02-727-2292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문의: 032-930-8500~3

보이스 트레이닝(전례교육도 가능)

대상: 모든 교우, 전례분과
 문의: 50주년기념영성센터 032-933-1528

모현센터의원 간호사 모집

조건: 호스피스병동 3교대(기숙사 제공)
 문의: 031-536-8998(경기 포천시)

2020 전기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 모집

접수기간: 11/5(화)~11/14(목)
 모집전공: 현대회화, 바이오메디컬아트, 3D융합조형, 이콘, 스테인드글라스, 교회문화재, 헬스케어환경디자인, 스마트콘텐츠, 간호학
 입학문의: 032-830-7015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모집

채용분야: 고객지원팀 팀원, 영양조리반 조리사 /담당업무: 사무행정 등(팀원), 단체급식 조리(조리사) /지원마감: 11/8(금)까지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고

요양보호사 모집(3교대)

기관: 모현센터노인전문요양원(경기 포천시)
 문의: 010-9795-0032

고메스심리상담소(무료)

풍부한 경험을 갖춘 상담전문가들이 신앙적 소명(召命)을 따라 이웃의 어려움과 고메스 상담소를 돕고 있습니다.(매달 선착순 20명)
 장소: 서울 강북구 삼양로 139 나길 16-8 도미니코수도원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안내 · 기타 ▶▶**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개인심리, 가족갈등

내용 전화상담전용: 02-990-9366, 월~금 10시~16시 /대면상담문의: 02-990-9360, 예약후 상담진행

가톨릭 여행사 010-5235-3533

1/6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1/13 이스라엘 일주 9일 365만 원(대한항공)
 1/20 이스라엘 일주 9일 365만 원(대한항공)
 1/28 이탈리아 일주 13일 430만 원

한국 예사회 후원회 성지순례

12/12 베트남 성모성지(다낭) 5일 130만 원
 1/9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380만 원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

1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 원
 11/22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69만 원
 11/28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58만 원
 12/3 동부유럽 12일 350만 원
 1/27 발칸반도 12일 355만 원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1월 정규입학 모집

대상: 초5~고1
 기간: 단기(1년) /장기(1년 이상)
 문의: 02-2258-8983(월~금)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oakinternational.co.kr

라파엘여행사 02-778-8565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11/18, 12/3 289만 원
 이스라엘 9일 1/15 299만 원
 이태리일주 9일 11/7 279만 원, 1/21구정 299만 원
 성모님발현지 13일 10/28 399만 원, 2/3 389만 원

아곱성지순례 02-755-3009

대구교구: 11/22~11/23 김수환 추기경님 사랑과 나눔공원 맞순례 및 대구교구순례
 원주추천: 11/15~11/16, 전주광주: 12/5~12/7

제 55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초·중·고: 1/5~2/9(3,5주 선택), 가톨릭계 초·중·고 학교에서 아일랜드 학생들과 함께
 대·일반: 1/5~2/16(6주 or 장기 선택)
 DCU 대학교 or ULearn 학원
 세계 각국 연수생들과 함께
 설명회: 10/20(일) 14시 명동성당내 가톨릭 회관 2층 강당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문의: 그린피시아엔티 02-3446-4253

교회 내 성폭력 피해 신고 안내

전화접수: 031-850-1406, 1411
 전자우편: clergy@uca.or.kr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예수회	10/26(토) 14시	성소실 블로그 참조	010-3324-0731
	예수고난회	11/2 18시~11/3 11시	서울 돈암동 수도원	010-6804-4904
	한국외방선교회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010-8715-2846



교회(4) :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마태 24,35)

왕태연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세상이 변하는 만큼 교회의 가르침도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여전히 원론적인 윤리지침만을 강조한다면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일들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만큼 교회의 가르침 또한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사회에서 교회가 변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며 시대에 걸맞지 않은 가르침들을 내어놓는다면 결국 교회가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윤리와 정의의 영역에서도 교회가 어느 정도는 양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사회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동시에 쇄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쇄신과 변화가 단지 사회의 요구대로 현실과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변천 속에도 변하지 않는 많은 것이 들어 있으며, 그 불변의 것들은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 안에 궁극의 토대를 두고 있다고 확언합니다.”

(사목 헌장 10항)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그에 따른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가치나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사회 정의의 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심지어 창조주의 영역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윤리적인 실험과 생명경시를 묵과해서는 안되며,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겪는 불평등과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발생한 소외계층과 극빈층의 이웃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의 변화와 발전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가치들에 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회가 변화와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가치들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려면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능력과 그의 끊임없는 내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회개에 최우선을 두는 것은 죄를 유발시키는 제도와 생활 여건을 적절히 개선할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도와 생활 여건들은 정의의 규범에 맞아야 하고, 선에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88항) ☺